
정책참고자료

2019-2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버려진 박물관을 주민도서관으로... 동해시에 망상해뜰책뜰 1일 개소

- 망상지역 주민들 협동조합 결성해 직접 운영키로 -

_____ 4

2 국민권익위원회

농업직불금'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_____ 10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 문 열다!

-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

_____ 14

4 교육부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_____ 1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치안용 드론 떴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소방, 해경, 경찰청 공동개발 무인기 초도비행 성공 -

_____ 22

6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과 미래를 문화데이터로 연결해 미래산업을 전망하다

- 2019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 박람회 개최 -

_____ 27

7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

- 2019년 3개소 이어 2020년에 5개소 신규 선정 계획 -

_____ 31

8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집 발간...자생생물 5만여 종 다뤄

- 국립생물자원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통계 및 자생생물 5만 827종 현황을 담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발간 -

_____ 35

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 _____ 44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

1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_____ 5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1 국토교통부

**화물·건설기계차 안전 캠페인
“반사띠 붙이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하세요”** _____ 55

12 해양수산부

9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 9월 대비 44% 감소 _____ 60
-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조업활동 축소가 주요 원인 -

버려진 박물관을 주민도서관으로... 동해시에 망상해뜰책뜰 1일 개소

- 망상지역 주민들 협동조합 결성해 직접 운영기로 -

-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박물관이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지자체 및 정부 지원으로 주민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1일 문을 연다.
- 이날 개관식에는 심규언 동해시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 해 뜨는 동해의 대표적 명소인 망상에서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을 하나로 묶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도서관의 이름도 '망상해뜰책뜰'로 지었다.
- 아침 해가 멋진 망상지역은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겪었다. 산불 피해로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어 마을 주민들은 상심에 젖어 있었으나, 작년부터 추진한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이 때마침 결실을 맺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다. 이 공간은 해오름의 풍경을 앞에 둔 바닷가 도서관으로 꾸며져 주민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 행정구역상 동해시 망상동인 이 지역의 인구는 2000년만 해도 인구 5천 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3,9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 망상지역 주민들은 2013년 7월 고래화석박물관의 폐관 이후, 건물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곳을 책을 매개로 동해를 알리는 장소로 활용해 보기로 뜻을 모았다.
- 주민들과 동해시는 2018년 4월에 행정안전부 공공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응해 공간을 재생하는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주민들은 1층을 북카페로 꾸미기로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북 트레일러 등 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해왔다.
- 지난 8월에는 개인이나 민간 위탁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뜰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협동조합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신뢰와 협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이날 개관식에서는 동해시장이 주민대표에게 망상해뜰책뜰의 열쇠를 전달한다. 이는 망상해뜰책뜰이 주민 주도형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알리는 것이며, 공간운영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뜻한다.
- 이 공간을 운영하는 망상동주민자치위원회와 해뜰협동조합은 유익한 책을 소개하고, 책과 함께하는 1박2일 북스테이, 가족 독서토론회, 레터프레스 등의 프로그램과 계층별, 세대별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 나감으로써 바닷가 농촌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살아있는 체험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곳은 망상해수욕장 등 관광명소를 끼고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짜고 인근 망상초등학교 어린이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동해시 주민자치위원회 최양현 위원장은 “문화 사각지대였던 망상동에 오롯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 기분이 좋은 반면, 주민들이 사업제안부터 참여해 운영까지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주민참여를 늘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 심규언 시장은 “망상해뜰책뜰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간인 만큼 주민 스스로 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망상해뜰책뜰은 지역주민 스스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어서 주민자치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도해 버려진 공간을 다시 살려내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망상해뜰책뜰 오픈행사 및 사업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1. 1.(금) 13:40 / 망상해뜰책뜰(동해시 동해대로 6261)
- 참석 : 동해시장,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
- 세부계획

구 분		시 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망상 해뜰 책뜰 개관식	개 관 식	식 전 공 연	13:20	13:40	20	• 괴란고청제 농악/ 마술공연(초청)
		개 회 및 경 과 보 고	13:40	13:45	05	• 국민의례, 사업추진 경과보고
		세 레 모 니	13:45	13:50	05	• 건물 열쇠전달 세레모니(주요인사3명 →주민대표)
		기 념 사 및 축 사	13:50	14:00	10	• 동해시장 기념사 • 외부 주요참석인사 축사
		테이프커팅& 떡케익절단식	14:00	14:10	10	• 테이프커팅&떡 케익 절단식 • 20명 이내 참석(어린이 포함)
	부 대 행 사	시설관람 및 체 험 행 사	14:10	14:25	15	• (2층) 내생애 도서 기증 및 체험행사(즉석사진) • (1층) 체험행사 관람 후 착석
		아 카 이 빙 & 다 과 회	14:25	14:35	10	• 시설조성과정 및 주민인터뷰 등 기록영상 시청 • 해뜰카페 내 다과회
		기 념 촬 영 및 폐 회	14:35	14:40	05	• 체험행사 즉석사진 걸기행사 및 폐회

□ 사업 개요

- 공사기간 : 2018. 10월 ~ 2019. 9월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261
- 규 모 : 지상2층, 면적 2,563㎡(건축연면적 539㎡ / 야외공원 2,024㎡)
- 공 사 비 : 826백만원 (국비 700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 공간구성

【망상해뜰책뜰 조성 현황】

공간	조성내용	공간	조성내용
1층	☞ 해뜰카페 주민커뮤니티공간 소극장 세미나실 특산물판매장	옥상	☞ 해뜰테라스 바다 조망을 배경으로 소통하는 공간
2층	☞ 바닷가 도서관 도서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야외	☞ 자연놀이터 + 파사드(랜드마크형 조형물) 복스тей, 모험놀이터, 작은 캠핑장

외관





1층 해뜰카페



1층 세미나실



2층 바닷가 도서관



2층 바닷가 도서관



야외 자연놀이터



옥상 해뜰테라스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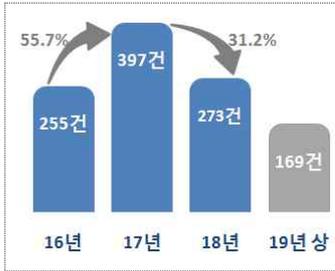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서울)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연도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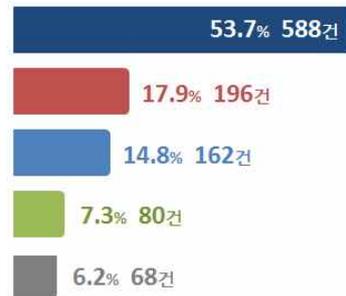


< 분기별 추이 >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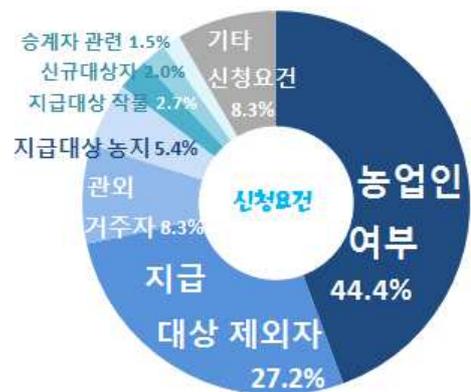
- ① 직불금 신청요건
- ② 직불금 부정수급
- ③ 직불금 신청절차
- ④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
- ⑤ 직불금 확대 등 기타



□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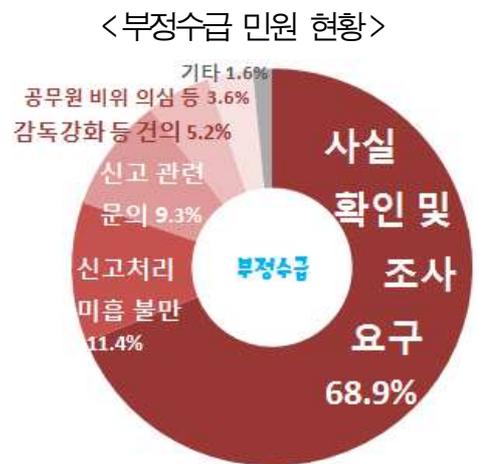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요건 민원 현황>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건),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건)이었으며, 신규농의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내역의 공개범위 확대, 신고처리 지침 마련 등 신고 사후관리와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 ‘직불금 신청절차’와 관련된 민원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문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역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편 사례 중에는 직불금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신청절차 민원 현황>



□ 이 외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의 등의 과실로 누락됐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7.3%, 80건)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는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 문 열다!

-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 >

지역(센터수)	설치센터
서울·강원(6)	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경기·인천(6)	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부산·울산·경남(4)	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대구·경북(4)	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광주·호남·제주(5)	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대전·충청(5)	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위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폐업상담 내용)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 (법률자문 분야)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금 지급 등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폐업·한계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퇴로를 확보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재기 지원 전담 창구 필요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재기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18.12.31 공포, '19.7.1 시행)
 - 재기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19년 추경예산(7.5억원) 국회 통과(8.2)
 - 재기지원센터 전담인력(30명) 채용(8.21~10.17)
 - 법률자문 지원 접수 개시(10.1~)

□ 설치 지역

- 관할지역 소상공인 수 및 사업 지원실적, 접근성,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30개 지역 선정

<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 >

지역(센터수)	설치센터
서울·강원(6)	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경기·인천(6)	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부산·울산·경남(4)	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대구·경북(4)	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광주·호남·제주(5)	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대전·충청(5)	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 주요 업무

- 폐업 상담(폐업진단, 폐업신고 절차, 신용관리, 취업 및 재창업 등), 전문가 자문(법률·세무·노무 등), 점포철거 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

< 주요 지원 내용 >

▲ 폐업진단 및 상담	▲ 취업 및 재창업 지원
▲ 폐업 절차 및 방법 안내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지원
▲ 폐업관련 법률(세무·노무 포함) 자문	▲ 재기교육

참고2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 행사목적

- 소상공인 폐업·재기 전담 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30개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1.5(화) 14:00~15:00 /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종각역 2번출구 북쪽 150m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 (참석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장, 소상공인, 센터 전담인력 등 20여명

□ 행사내용

* 행사장 : 소진공 서울전용교육장(3층)

시간	소요	세 부 내 용	비 고
14:00~14:03	3'	▪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4:02~14:10	7'	▪ 경과보고	소진공 컨설팅지원실장
14:10~14:15	5'	▪ 인사말	소진공 이사장
14:15~14:20	5'	▪ 격려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14:20~14:25	5'	▪ 희망영상 상영	
14:25~14:35	10'	▪ 기념촬영	
14:35~14:50	15'	▪ 시설소개 및 관계자 격려	2층 이동 (재기지원센터)
14:50~15:00	10'	▪ 현판 제막식	1층 이동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 ◆ 경찰청 및 국세청과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 구성·운영 및 특별점검 실시
- ◆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2019년 11월~2020년 3월/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 ◆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 ◆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 ◆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 교육부는 11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취업·교육·납세 등 국민 삶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운영(2017년 9월~/대통령 주재)

○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11월 7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11월 중)’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 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일백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58개 영업 중(서울 126, 경기 64, 부산 25, 기타 시도 43)
- 또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그리고,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재,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확대하여 입시 관련 위법행위 신고 창구 별도 마련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 >

- ▶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 ▶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 ▶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

○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하는 기준 마련됨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재난치안용 드론 떴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소방, 해경, 경찰청 공동개발 무인기 초도비행 성공 -

- 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개발사업(이하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기 시제품이 10월 31일(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고흥항공센터에서 성공적인 초도비행을 마쳤다.
- 이 날 재난치안용 무인기사업의 초도비행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자문위원 및 개발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공공수요처(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요구도가 충실히 반영된 재난치안 임무 특화 무인기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2017년 6월 착수하여, 지난해 상세설계와 올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이후 성능평가를 수행해왔으며,
 - 이번 초도비행 성공으로 본격적인 통합시스템 성능시험과 수요부처 요구도 검증시험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초도비행은 해상의 실제환경을 모사하여 해상 감시/사고현장 출동 임무 중 조난자를 발견하고, 소형 무인기가 현장의 영상정보 전송과 구명장비를 투하하는 비행임무 시나리오를 약 15분 간 수행하는 형

대로 진행되었다.

- 재난 상황실에서 해상 감시 및 사고 현장 출동 임무를 부여받아 무인기가 자동비행하여 현장 영상정보 전송 임무를 수행하고,
- 조난자와 같은 특이사항을 확인한 상황실의 판단에 따라 사고현장 근접 촬영 및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조난자를 인식한 무인기는 구명 장비를 투하하였으며, 관련 영상 정보를 전송하고 자동 복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였다.

□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통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이 수요부처별 특화기술개발을 담당하여 다부처 공동개발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항우연 외 28개 산·학·연 기관 및 기업간 협업하여 2020년까지 수요부처 요구도 검증시험을 거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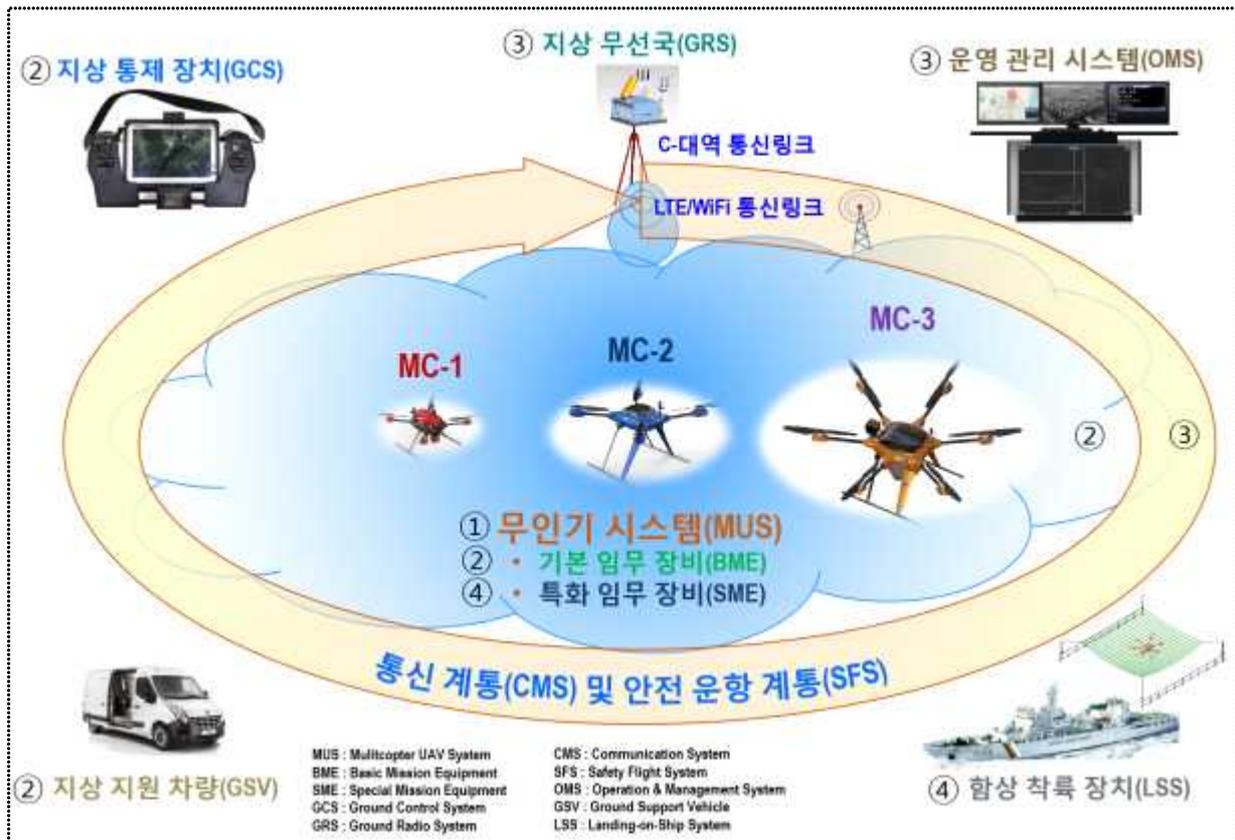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 무인기는 방수, 내열, 내풍, 내염 등의 극한 환경 극복과 통신음영 등의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라며,

- 향후 “기존 상용드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치안 환경(붕괴위험 실내탐색, 화재, 통신음영, 유해화학물질 유출, 해양 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어 현장 대응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1.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 개요
2. 초도비행 시연 시나리오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항공센터 소개

- 사업명 :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산업부,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기간 : '17.06.01 ~ '20.05.31.(36개월)
- 사업비 : 총사업비 490억원 (국고: 391억원, 민간: 99억원)
- 과제구성
 - 총괄(항우연) : 국민안전 대응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 ①세부(항우연) :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 시스템통합 및 통합시험평가
 - ②세부(휴인스) :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 공통플랫폼 기술 개발
 - ③세부(솔탑) :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 통신, 안전운항, 운영관리 기술 개발
 - ④세부(ANH Structure) : 재난치안용 멀티콥터 무인기 특화임무장비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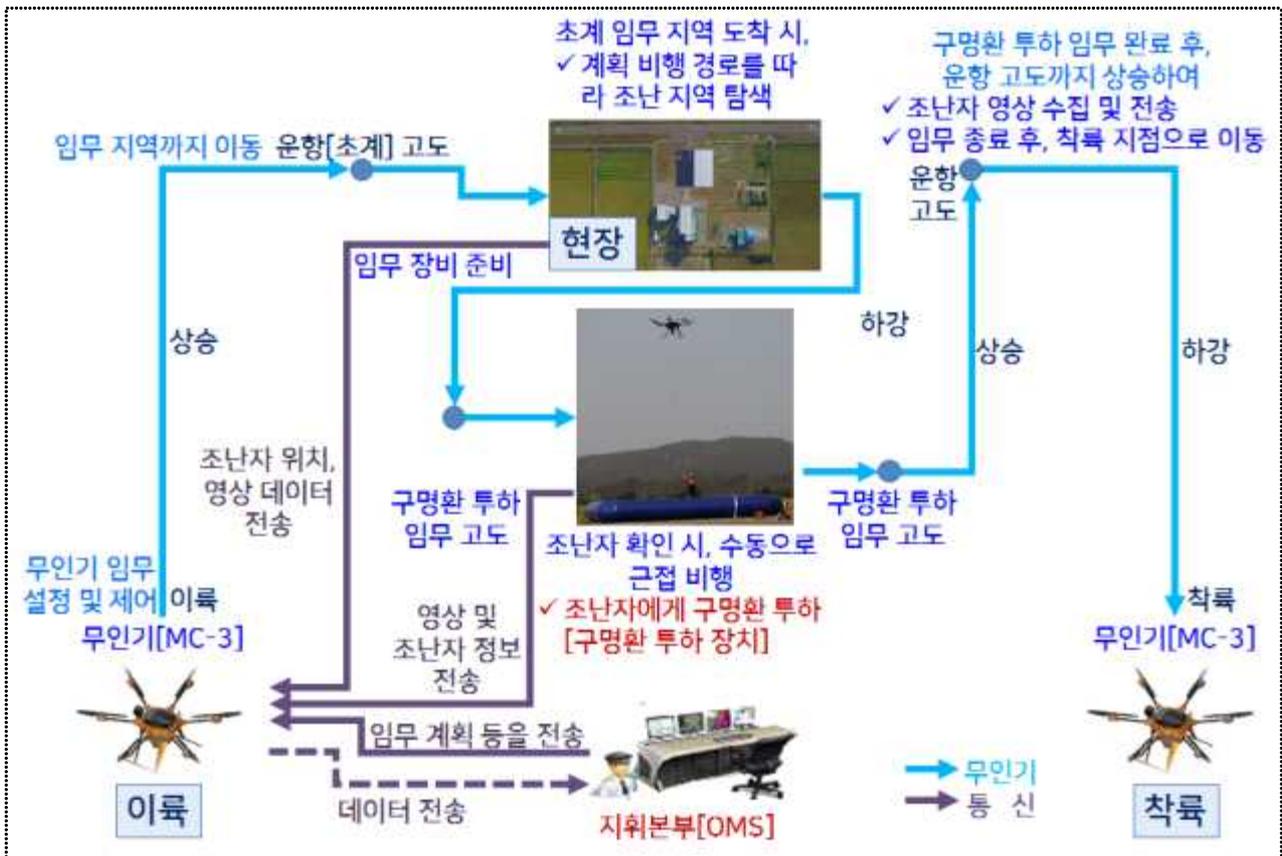
<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



○ 초도 비행 기체 : MC-3



○ 초도 비행 시나리오(운용 개념도)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산로 487-353
- 시설 부지 면적 : 90,000 m² (300 m x 300 m)
- 고흥만 이착륙 지정
 - 2015. 01. 30
 - 공역 UA-22 (직경 : 22 km, 고도 450 m)
- 주요시험시설
 - 안전줄 시험장, 소형기 시험동(소형기/무인기 조립, 격납), 낙하시험동 (L/G Drop Test), 비행선 시험동(비행체 조립, 정비, 보관), 휠타워, 연소시험장, 활주로(700 m x 24 m)
- 기능 및 역할
 - 국내 개발 항공기 및 항공부품에 대한 개발 비행시험
 - 개발 완료된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비행시험
 - 시험평가 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기술협력 및 산업화 지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항공센터 현황 >

전통과 미래를 문화데이터로 연결해 미래산업을 전망하다

- 2019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 박람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이 주관하는 '2019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 박람회'가 11월 7일(목), 임피리얼팰리스서울(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 분야의 올해 성과와 최신 흐름 등을 알아보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제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문화데이터 경진대회)'의 수상팀과,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등, 총 33개 분야에 대한 시상도 진행한다. 또한 실제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

* 문화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산, 예술, 체육, 관광, 한글,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

** 공공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

1부 행사에서는 ▲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및 민간 활용과 관련한 올해의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 우수기관 및 아이디어, 제품 창업 분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이번 '제7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에서는 국악음원을 활용해 1인이 연주하는 국악합동연주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한 '슈퍼스트링 사운드' 기업이 대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문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한 우수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이 상을 받는다. ▲ 시상식 후에는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을 통한 가치 창출’을 주제로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기조강연과 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융합 공연이 이어진다.

2부 행사에서는 ‘문화데이터’ 분과와 ‘공공저작물’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최신 흐름을 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특별강연이 열린다. ▲ ‘문화 데이터’ 분과에서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플랫폼 미래상’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의 토론회, 유명 유튜브 창작자의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제작에 관한 강연이 진행된다. ▲ ‘공공저작물’ 분과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사례 발표, 만화가 겸 법률가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의 공공저작물 활용 특별강연과,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관 홍보 마케팅전략’을 주제로 하는 홍보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 부문에서 조성한 품질 높은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풍부한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관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데이터와 공공저작물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번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event-us.kr/cultural/event/116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9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 박람회 관련 이미지

※ 기초강연 ※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을 통한 가치 창출”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
 (데이터마이닝센터장,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데이터 저자)

※ 특별강연 ※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문화데이터 플랫폼”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방안”
 법무법인 감우 이영욱 변호사

“문화분야 유튜브 크리에이터 특강”
 유튜브랩 박현우 대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관 홍보 마케팅 전략”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

※ 공연 ※

“전통과 미래를 하나로”
 전통 대고와 자체 제작한 모듬북 등 전통의 색채가 강한 타악 퍼포먼스 축하공연
 제7회 문화데이터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공연

※ 세부일정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사전등록 및 참석자 확인			
1부 사업 성과 보고 및 시상식	10:00~10:20	식전 문화공연 ① 전통-미디어파사드 융합 공연 ② 제7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공연		두베출	
	10:20~10:30	일정소개 행사 식순, 내빈 소개 등		진행자	
	10:30~10:40	개회선언, 개회사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장관 인사말 대독) 축사 위성곤 국회의원			
	10:40~10:50	사업 경과보고 문화데이터·공공저작물 사업소개 및 추진현황·성과보고 (영상 시청)			
	10:50~11:50	시상식 및 기념촬영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공공저작물 개방시상식 및 수상자 전체 기념촬영 위촉식 공공누리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			
	11:50~12:30	기초강연 “문화데이터 및 공공저작물 을 통한 가치 창출”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 (데이터마이닝센터장,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데이터 저자)			
coffee break	12:30~14:00	점심만찬 및 참여기업 마켓 관람		두베출 세레나홀	
		문화데이터(두베출) 공공저작물(세레나홀)			
2부 최신 트렌드 동향 파악	14:00~14:20	문화체육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 및 데이터 활용전략	이현웅 원장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 사례 발표 및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2곳 영상 상영	장관상 표창 3인
	14:20~14:40	창조적 공유지로서의 문화데이터 플랫폼 발표	글로벌문화 콘텐츠학회	특별강연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 방안	법무법인 감우 이영욱 변호사
	14:40~15:00	문화데이터와 문화콘텐츠 관련 토론			
	15:00~15:30	휴식시간	홍보부스 관람	휴식시간	상담부스 운영
	15:30~16:30	특별강연 문화분야 유튜브 크리에이터 특강	유튜브랩 박현우 대표	특별강연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관 홍보 마케팅 전략	데이터마케팅 코리아 이진형 대표
	16:30~17:00	(폐회) 경품 추첨 및 폐회			두베출
17:00~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행사 식순 및 강연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07 THU
9:30 - 17:00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
학동역(7호선) 1번출구



TRADITIONAL

※
※
※

2019 CULTURAL BIG DATA
& PUBLIC WORKS FAIR
**문화빅데이터
& 공공저작물
박람회**

※ 전통과 미래를 하나로

FUTURE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

- 2019년 3개소 이어 2020년에 5개소 신규 선정 계획 -

《 주 요 내 용 》

◆ 2020년 신규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조성 계획 공모

- 공모기간 : 2019. 10. 31(목) ~ 2020. 1. 31(금)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 : 2020.1.28 ~ 1.31
- 공모절차 : 공모('19.10.31) → 사업계획 평가('20.2월초) → 선정('20.2월중)
- 응모주체 :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젓소, 가금류

◆ 스마트 축산단지에는 기반 조성비(부지 평탄화, 도로, 전기 등) 및 관제·교육시설비와 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 사업비(기존사업) 지원

- 기반 조성비 52.5억원 및 관제·교육시설 10억원
- 축사·분뇨·방역시설은 기존 정책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약취·질병 문제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지역을 3개소(강릉, 당진, 울진) 선정하데 이어, 2020년 5개소를 신규로 공모한다.

- 공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10.31일부터 내년 1월말까

지 3개월간 진행된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 : 2020.1.28 ~ 1.31

- 금번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질병 방역, 가축분뇨, 정보통신기술(ICT) 축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현장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축산악취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으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지역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축분뇨관리 : 퇴비, 액비 순환시스템 도입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양돈 분뇨는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에서 처리)

* 스마트 축산단지 차단방역 체계 : 가축·사료·분뇨의 입출고 이원화로 외부 차량의 단지 출입 제한, 3단계(외부도로 → 단지입구 → 축사입구) 소독 시스템 운영

□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5개소에 대해서 2021년까지 부지 평탄화, 도로, 용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53억원(사업비의 70%)과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정보관리·교육센터 시설비 10억원(사업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2022~2023년 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패키지로 지원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축산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하고, 중규모 이상 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집중 보급하여 가축 분뇨 및 질병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비(ICT 축산 시설, 가축분뇨처리)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시설 현대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규제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한계
 -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축산 인프라 마련 필요
- 체계화된 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은 최소화 하고, ICT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은 높은 축산단지 조성
 - * 축산단지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 추진('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질병·생산관리 체계 >

구 분	관 리 체 계	
가축분뇨 관 리	◆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에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악취관리	◦ 밀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정화 → 분뇨 자동 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수질관리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노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액비제조 → 농가 환원
방 역 시스템	◆ 축산단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 제한,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차단방역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소독시스템	◦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축사내·외부 소독시설
	폐사축	◦ 가금·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생산성 향 상	◆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환경관리	◦ 축사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제어
	사양관리	◦ 개체별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생산비 감축
	경영관리	◦ 생산·경영·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집 발간...자생생물 5만여 종 다뤄

- 국립생물자원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통계 및 자생생물 5만 827종 현황을 담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발간 -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및 자생생물 5만 827종의 현황을 담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
-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국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제작됐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발간하고 있다.
- 올해 통계자료집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관련 통계 정보에 따라 목차를 선정하고 자생생물 분류군별 현황, 부처별 보호 및 관리 법정관리생물의 통계, 자연환경 보호지역 현황을 다뤘다.
- 또한, 미국의 생명 목록(Catalogue of Life),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 특히 이번 자료집에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리된 자생생물 5만 827종에 대해 최초로 과(family) 수준 분류군의 종

현황을 제시했다.

○ 5만 827종은 총 3,841과로 분류됐으며, 종의 종류가 가장 많은 과는 곤충강 벌목에 속한 고치벌과로 982종이 있다.

○ 종의 종류가 가장 적은 과는 솔잎난강 솔잎난목에 속한 솔잎난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솔잎난이 해당됨), 곤충강 하루살이목 방패하루살이과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68개의 과로 각각 1속 1종이 있다. 다만 곤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은 강(class) 수준의 분류군으로 제시됐다.

※ 현대 생물 분류체계는 종(species), 속(genus), 과(family), 목(order), 강(class), 문(phylum), 계(kingdom)로 분류

○ 특히 자생생물 통계, 관리분류군별 자생생물의 종 다양도 우점 순위, 한반도 고유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자연환경 보호 지역, 세계 생물 종 현황에 대한 6개 부문의 정보는 보기 쉽게 그림 형태로 수록됐다.

□ 올해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kbr.go.kr)’ 및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 누리집에서 그림 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11월 8일부터는 관련 부처, 지자체, 주요 도서관 및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출처 표시와 함께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지킨다면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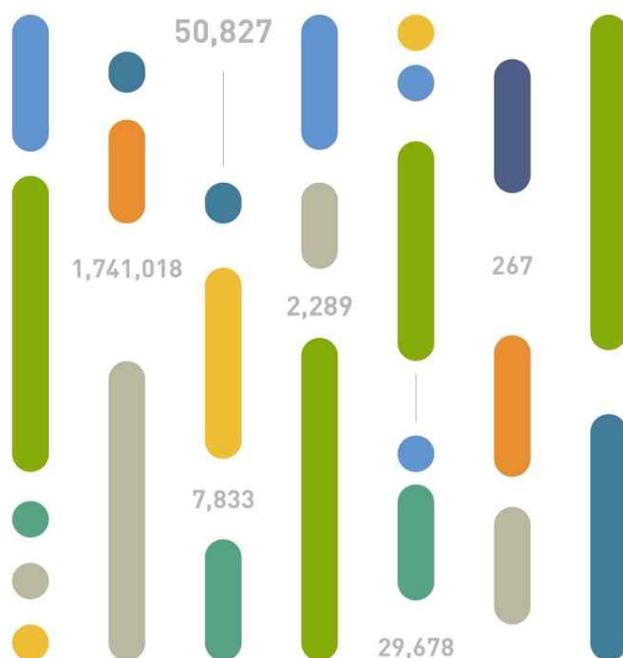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면서, “한반도의 생물종 수는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절반 가량의 정보가 파악된 셈”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표지.
2.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목차.
3.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내지.
4. 전문용어 설명. 끝.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0983-10

2018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BIODIVERSITY STATISTICS OF KOREA 2018



국가생물다양성센터
NATIONAL BIODIVERSITY CENTER

contents

목차

발간사	05
일리두기	11
프롤로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은?	12
관리분류군별 자생생물의 종 다양도 우점 순위는?	14
한반도에만 자생하는 한반도 고유종은?	20
한반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2
우리나라 자연환경보호지역은?	24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26

다. 해양수산부	158
1) 보호-관리현황	158
2) 보호 대상	158
3) 관리 대상	161
라. 문화체육관광부	162
1) 보호-관리현황	162
2) 보호 대상	162

section

01.

국가 생물다양성

1. 국내 생물 종 수	30
가.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 종 수	30
1) 미국(Duman)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 종 수	30
2) Kingdom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 종 수	31
나. 세부분류군별 종 현황	32
1) 생물 종 수	33
다. 연도별 추이(2013~2018)	125
1) 생물 종 수 추이	125
2) Kingdom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 종 수 추이	126
3) 세부 분류군별 생물 종 수 추이	127
2. 법정관리생물	132
가. 환경부	132
1) 보호-관리현황	132
2) 보호 대상	133
3) 관리 대상	148
나. 농림축산식품부	152
1) 보호-관리현황	152
2) 보호 대상	153
3) 관리 대상	155

3. 기타 생물종 관리 현황	164
가. 한반도 고유종	164
나. 국가생물지식목록 평가 현황	166
1) 분류군별 국가생물지식목록 평가 현황	166
2) 연도별 국가생물지식목록 평가 및 자료집 발간 현황	167
다. 해외반출-소장 자생생물자원 조사 현황	168
라. 자생생물 진통지식 확보 현황	172
1) 자생생물 진통지식 분류군별 확보 현황	172
2) 자생생물 구전 진통지식 지역별 확보 현황	174
3) 자생생물 구전 진통지식 용도별 확보 현황	177
마. 생물자원 수출-입 관리 현황	178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현황(2014~2018)	178
2) 무역생물종 관리 현황	181
바. 서식지외보전기관 보전대상 야생생물	182
1) 환경부	182
2) 해양수산부	186
사.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현황	190
1) 기관별 등록 현황	190
2) 생물자원 유형별 등록 현황	194

section

02.

세계 생물다양성

1. 세계 생물 종 수	218
가. Catalogue of Life : 2018 Annual Checklist	218
1) 미국(Duman) 분류체계에 따른 세계 생물 종 수	218
2) Kingdom 분류체계에 따른 세계 생물 종 수	218
3) 세부분류군별 등록 현황	221
4) 연도별 추이(2013~2018)	231
나. 국제자연보전연맹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232
2. 국제적 보호 대상	233
가. 세계 지식목록 평가 현황	233
3. 생물다양성 정보 현황	237
가. 표본-관찰 데이터 개요	237
나. 국가별 표본-관찰 데이터 간수	237
다. 데이터 수	240
1) 분류군별 데이터 수	240
2) 유형별 데이터 수	241
4. 국제 협약(조약)	242
가.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가입 현황	242

section

04.

참고자료

1. 문헌 및 보고서	268
2. 누리집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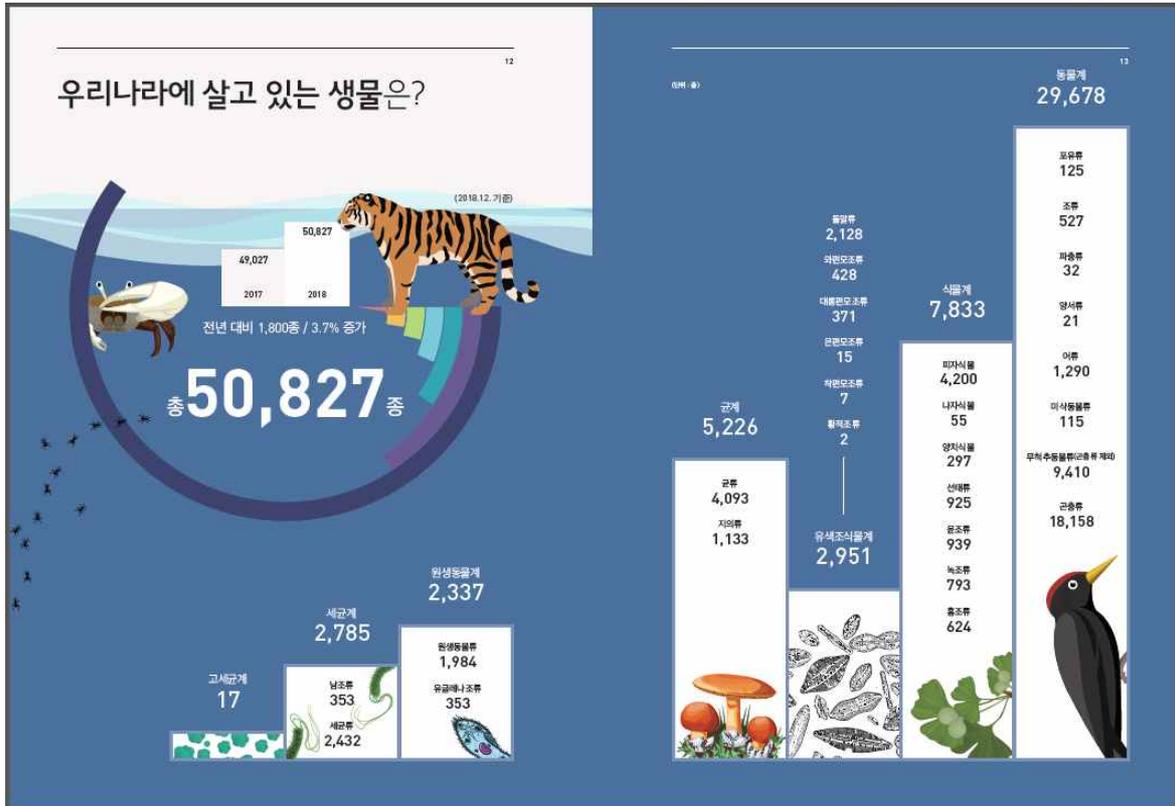
section

03.

법정관리대상 종목록

1. 법정관리생물 총괄표	246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249
3. 천연기념물 목록	254

붙임3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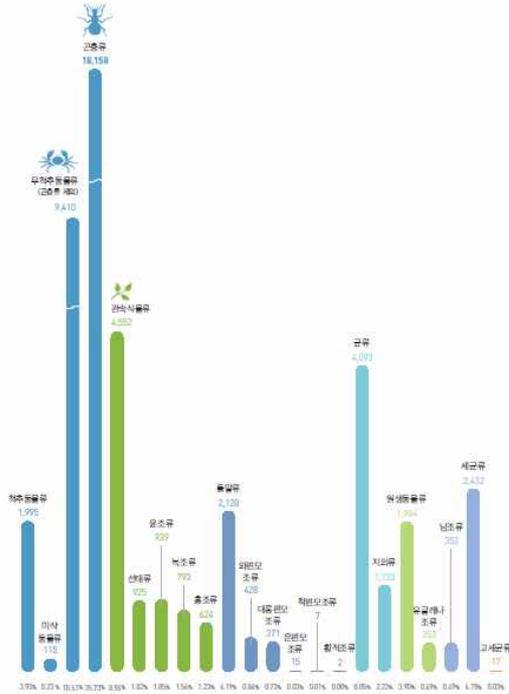


1. 국내 생물 종 수

32

나. 세부분류군별 종 현황

(단위: 개)



1) 생물 종 수¹⁾

구분	종 수	종 수 비율(%)	
동물계	포유류	125	0.25
	조류	527	1.04
	파충류	32	0.06
	양서류	21	0.04
	어류	1,290	2.54
식물계	관상식물류	115	0.23
	무척추동물류 (곤충류 제외)	9,410	18.51
	곤충류	18,158	35.73
	관상식물류	4,552	8.96
	식물류	925	1.82
유색조식물계	관상식물류	939	1.85
	관상식물류	4,352	8.96
	관상식물류	925	1.82
	관상식물류	793	1.56
	관상식물류	624	1.23
고세균계	관상식물류	2,128	4.19
	관상식물류	428	0.84
	관상식물류	371	0.73
	관상식물류	15	0.03
	관상식물류	7	0.01
세균계	관상식물류	2	0.00
	관상식물류	4,093	8.05
	관상식물류	1,133	2.23
	관상식물류	1,984	3.96
	관상식물류	353	0.69
고세균계	관상식물류	353	0.69
	관상식물류	2,432	4.78
	관상식물류	17	0.03
	관상식물류	17	0.03
	관상식물류	17	0.03
합계	49,827	100	

1) Roggling, Michael A. et al. (2015)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세부분류군별 종 수를 추정하여 정리하였다. 관상식물류는 추정치임.

1. 국내 생물 종 수

54

나. 세부분류군별 종 현황

가) 동물계

(가) 곤충류

Phylum	Class	Order	Family	종 수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5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5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5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5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80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47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7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7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26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Meloidae	10

다음 페이지를 이어 읽으세요.

1. 국내 생물 종 수

55

Phylum	Class	Order	Family	종 수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Sphind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Staphylinidae	676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Stenotrachel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Synchry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enebrionidae	14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etradimidae	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hrosc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rachypach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richostom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rogidae	1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Trogosidae	7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Zopheridae	10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rctoscelidae	7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Forficulidae	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Labiduridae	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Pygidicranidae	4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Spongiph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coelidae	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gromyidae	3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nisopod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nthomyiidae	119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nthomyiidae	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ulidae	63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ste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Aulacopidae	1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Bibionidae	12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Blapharocentidae	8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Bombylidae	30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Calliphoridae	25
Arthropoda	Insecta	Coleoptera	Canacida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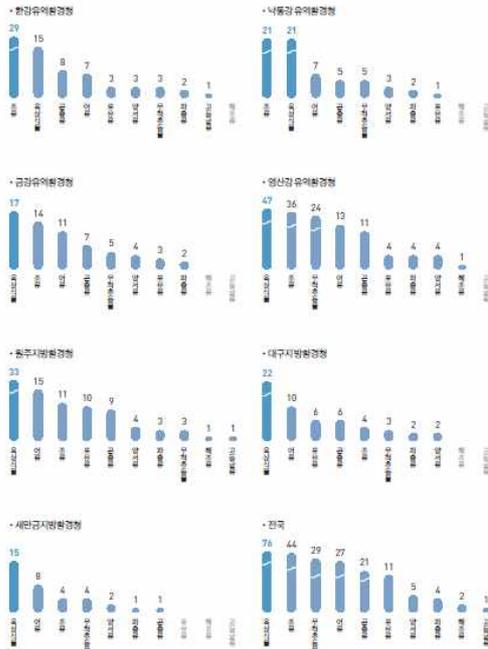
다음 페이지를 이어 읽으세요.

2. 법정관리생물

140

가. 환경부

● 연합성별 분포 현황



(3) 고시 개정 연도별 지정 종 수¹⁾

구분	1988	1993	1996	1998		2008		2012		2017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포유류	0	0	0	10	7	12	10	11	9	12	8
조류	0	0	0	13	46	13	48	12	49	14	49
양서류	12	22	22	1	4	1	5	2	5	2	6
어류	0	0	24	5	7	6	12	9	16	11	16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0	0	0	3	21	5	24	4	27	4	28
곤충	21	31	31	5	14	5	15	4	18	6	20
육상식물	59	126	126	6	52	8	56	9	68	11	77
해조류	0	0	0	0	0	0	1	0	2	0	2
고등균류	0	0	0	0	0	0	0	0	1	0	1
소계	43	151	203	194	221	346	267				
연속	92	179	203	194	221	266	267				

(단위: 종)

1) <연속하기 이상 종 - 시별의 변화>

- 1988년 1993년 1996년 1998년 2008년 2012년 2017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 법정관리생물 총괄표¹⁾

246

가. 보호대상

구분	종수	관리주체	관리범위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	267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1-2급)	35,870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익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31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479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12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6,813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6,813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566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 승인대상 농림생물자원	2,18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2018년 12월 고시 개정의 범위 및 고시에서 적용 법령 범위

247

구분	종수	관리주체	관리범위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희귀식물	571	농림축산식품부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특산식물	360	농림축산식품부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류·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특출산림보호대상종	50	농림축산식품부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산림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1,19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물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희유성해양동물	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포유동물	41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해양생물	77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물자원	1,1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376 ²⁾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2) 천연기념물 지정된 자연유산 중에서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276건임

- 생명 목록(Catalogue of Life): 2001년 글로벌 종 2000(global Species 2000)과 미국 통합 분류 정보 시스템(American 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의 제휴로 만들어 졌으며 동물, 식물, 곰팡이, 미생물의 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출범한 생물다양성 정보에 대한 범세계적인 협력체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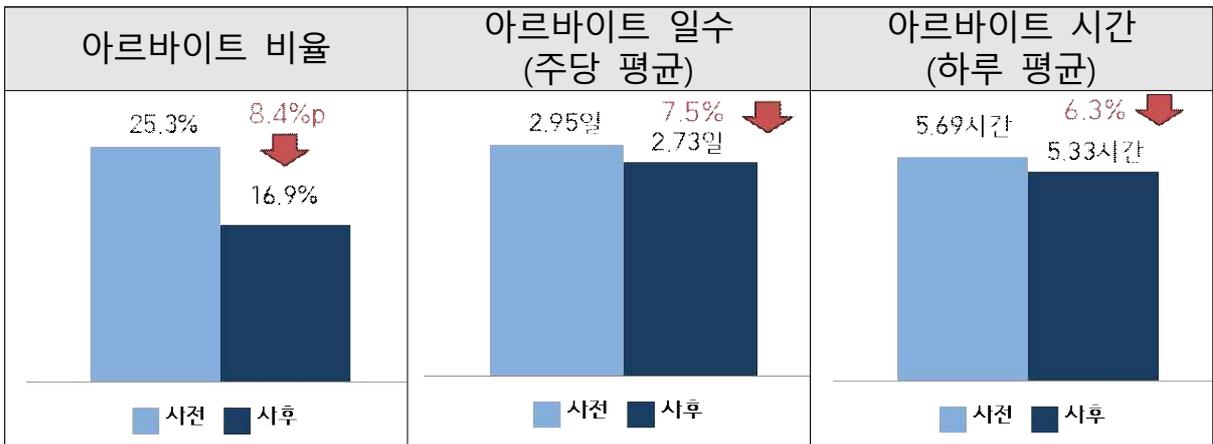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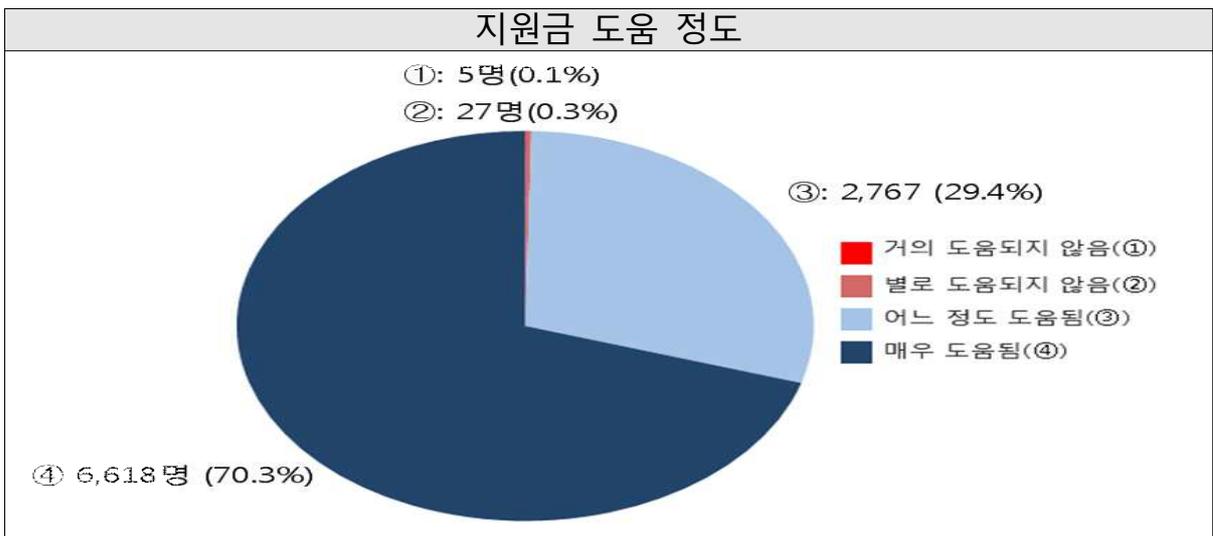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했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지원금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10.24 국회에 제출했다.
- 이번 분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19.3~12월)」 중 '참여자 사전-사후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붙임: 조사 개요)

< 1. 구직활동 집중도 제고 관련 >

- 우선,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르바이트 비율)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 6.3% 줄었다.



- (지원금 도움 여부)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 >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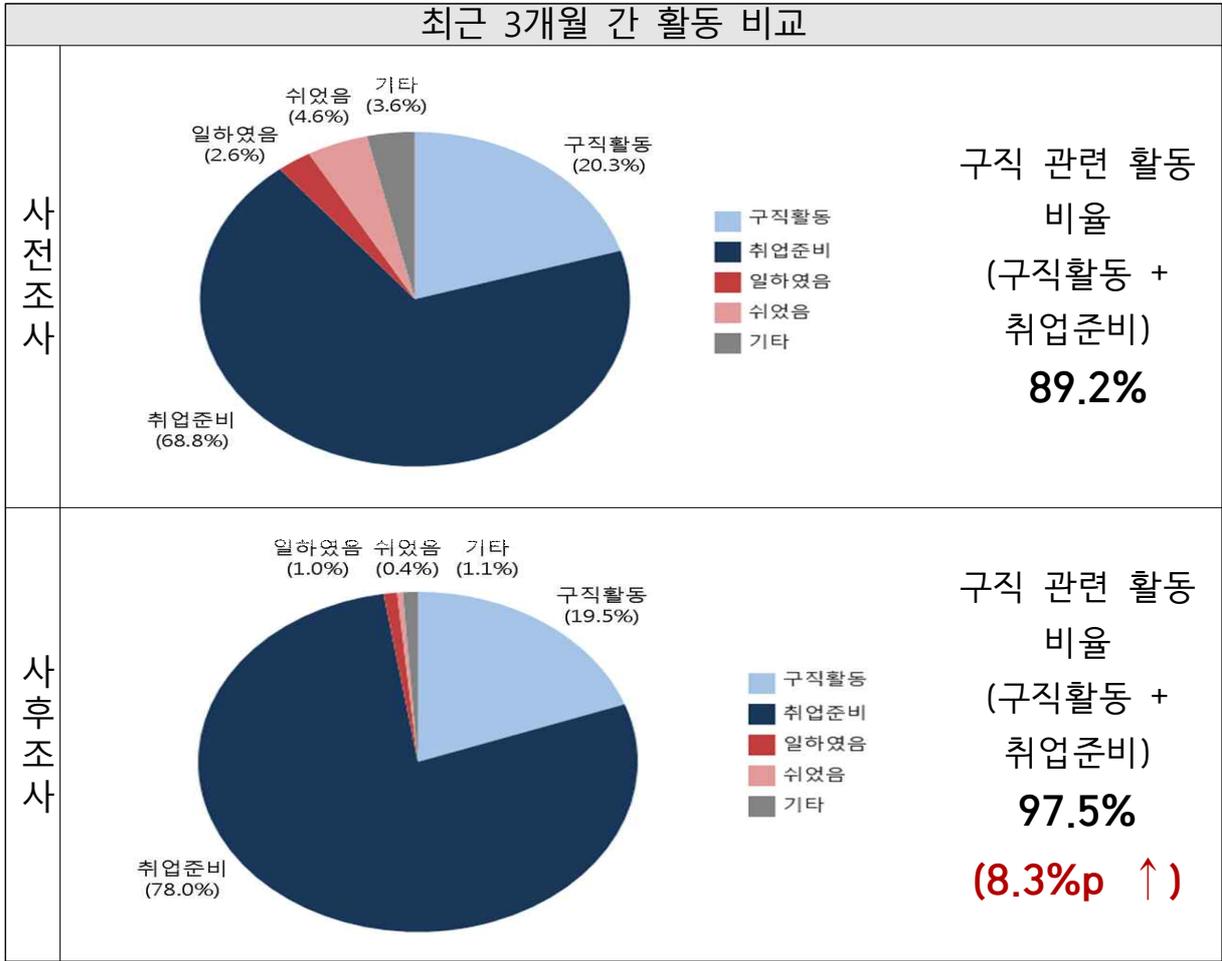
응답 유형	응답 수(비율)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	7,384(81.7)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였음	842(9.3)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할 수 있었음	239(2.6)
포기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취·창업 계획을 시도하였음	218(2.4)
나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음	197(2.2)
자신감, 적극성, 추진력이 높아졌음	74(0.8)
진로·취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었음	69(0.8)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었음	11(0.1)
기타	4(0.0)
합 계	9,038(100.0)

- 이상의 내용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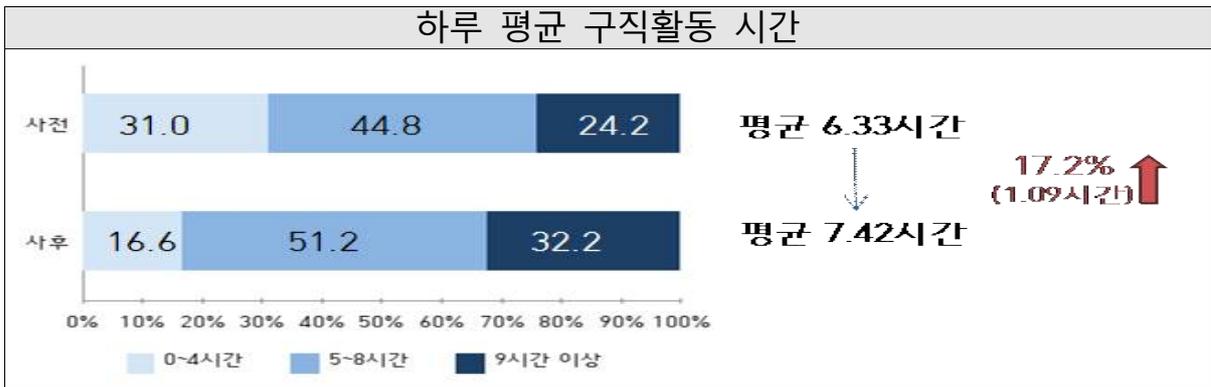
- ☉ 그 전에는 준비하는 시험 공부와 일을 병행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이후 일하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게 되어서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경남, 중·고등학교 교사 희망)
- ☉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인데, 그 동안 주말에 일을 하느라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식비나 교통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남, 소방관 희망)
- ☉ 취업준비 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 까지 해서 취업준비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원금을 받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충청, 병원 코디네이터 희망)

< 2. 구직활동 증가 관련 >

-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많이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 (구직활동 비율)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 취업 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p 증가(89.2→97.5%)했다.



○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참여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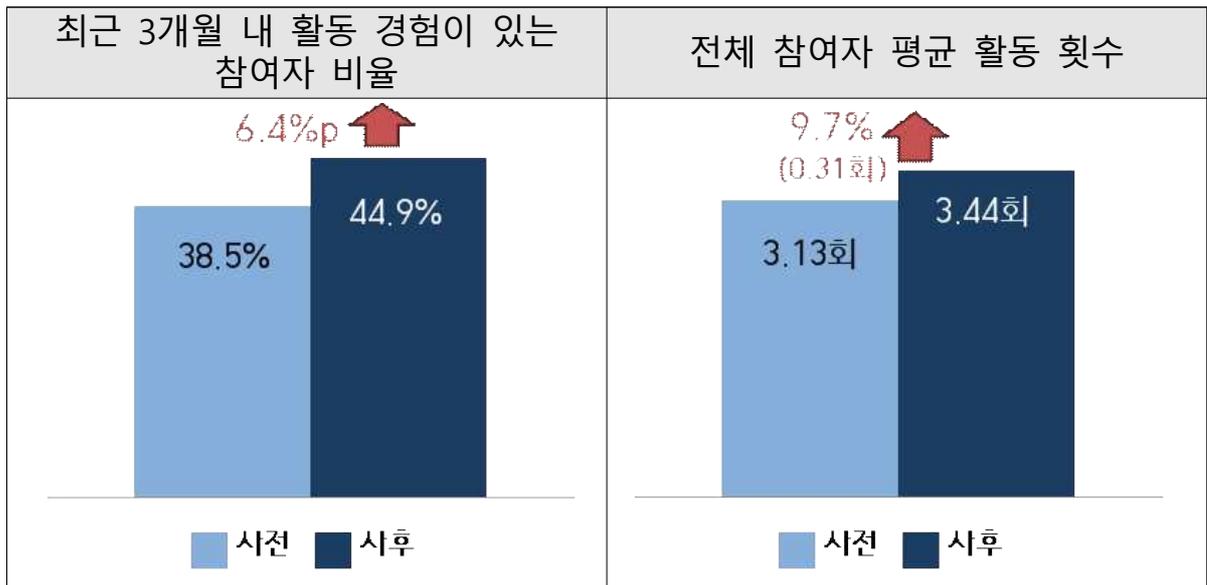


○ (최근 3개월 간 구직활동 횟수) 최근 3개월 간 직·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평균 직·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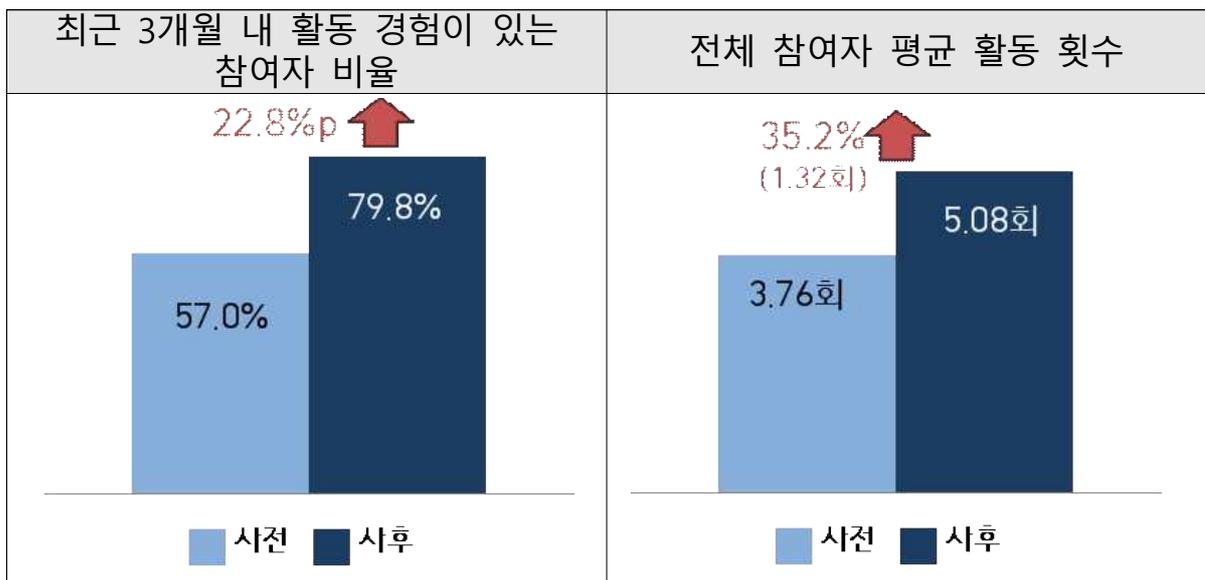
* 구직활동자들의 평균 구직활동 횟수를 통해 도출(예: 전체 참여자 3만명, 이중 직접 구직활동자 6천명, 이들의 평균 직접 구직활동 횟수가 5회일 경우 → 전체 참여자 3만명의 평균 직접구직활동 횟수는 1회: 6천명×5회/3만명)

직접 구직활동	간접 구직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지원(서류 제출 등) - 채용을 위한 면접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익·토플 등 외국어 시험 응시 - 자기소개서·이력서·면접 관련 상담·컨설팅 참여 - IT·컴퓨터 관련 교육 -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등

- **직접 구직활동:** 최근 3개월 간 직접 구직활동자는 44.9%로서 사전 조사(38.5%) 대비 6.4%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3.44회로서 사전조사(3.13회) 대비 9.7%(0.31회) 증가하였다.



- **간접 구직활동:** 최근 3개월 간 간접 구직활동자는 79.8%로서 사전 조사(57.0%) 대비 22.8%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5.08회로서 사전조사(3.76회) 대비 35.2%(1.32회) 증가하였다.



□ 이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 지원금을 받은 후로는 그 동안 못 봤던 책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 수강료가 비싼 학원도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배우·모델 희망)
- ☺ 그 동안 용돈을 받아서 구직활동 하면서 부모님께 손 벌릴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되었고, 책 한 권을 살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마음 편히 한 권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충청, 공공행정 사무원 희망)
- ☺ 알바를 좀 쉬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보다 삶의 여유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좀 어둡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뒤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습니다. (경기, 출판·편집 사무원 희망)

< 3. 지원금 사용 관련 >

- 1~3기 참여자(약 32천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동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과정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사용 횟수) 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582,983회, 33.3%), 소매 유통(479,878회, 27.4%), 인터넷 구매(230,672회, 13.3%) 순이었다.
- (항목별 사용 금액) 1회 평균 사용금액은 16천원으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 1회 평균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2,671원), 공간대여(104,845원), 통신비(76,916원) 순이어서, 생활비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결과는 지원금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소수의 청년은 사용내역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원금 업종별 평균 사용 횟수 및 금액 >

항목	평균 사용 횟수(비율 %)	평균금액(원)
식비	582,983(33.3)	9,515
소매유통	479,878(27.4)	7,720
인터넷구매	233,160(13.3)	36,919
교통비	55,803(3.2)	12,238
문화여가비	41,029(2.3)	21,609
의료비	37,339(2.1)	14,532
도서구입비	21,988(1.3)	23,605
이/미용	19,417(1.1)	22,485
의복비	17,790(1.0)	38,336
학원비	8,119(0.5)	202,671
통신비	12,433(0.7)	76,916
사진촬영	1,455(0.1)	27,784
숙박비	704(0.0)	38,369
공과금	648(0.0)	6,464
공간대여	8,745(0.5)	104,845
기타	230,672(13.2)	15,425
전체	1,752,163(100.0)	16,413

□ 이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 학원비, 독서실, 교재 등을 결제하고 나면 한 달 지원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독서실 비용이 성인 기준 18만원이어서, 독서실 비용으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기,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희망)
- ☺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으로 절반 정도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고 교재도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경북, 심리상담 전문가 희망)
- ☺ 매달 1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독서실 등록이나 자격증 접수, 교재 구입 등 필요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모두 결제합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생활비로 활용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예전에 일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천, 금융·보험 관리자 희망)

□ 이번 분석은 첫 지원금 지급 후(19.5월)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시간상 한계로 일자리 효과 분석까지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① 취업 후 임금 상승(생계 문제로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감소), ② **일자리 만족도 상승**(경제적 부담을 덜고 본인의 적성·전공을 고려한 구직활동 가능) 등의 효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내역 보다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에 집중했으며, 이번 분석을 통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 “앞으로 이번 심층인터뷰 결과로 확인한 청년들의 의견이나 외부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공정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층인터뷰(FGI) 中..

- Ⓜ 졸업 후 2년 이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는 제한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북, 경찰관 희망)
- Ⓜ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월세까지 내야 하는데, 주 2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충청, 공공행정 공무원 희망)
- Ⓜ 포인트로는 월세나 관리비 같은 지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취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경북, 시각 디자이너 희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안 제56조제1항)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참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또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미산입)하는데, 관련 세부기준을 통일시켜 정비함

-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화물·건설기계차 안전 캠페인 “반사띠 붙이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하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경찰, 운수단체, 건설기계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6일(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건설기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화물자동차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매송휴게소(하행)에서 14개 기관·단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및 건설기계 후부반사띠 부착 시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운전사각지대(NO_ZONE)체험,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안내된다.
-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9.7.1 시행)에 따라 신규제작 되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의 옆면과 뒷면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과 합동으로 자동차 성능규칙 시행 전(‘19.7.1) 제작되어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에 화물차 반사띠를 지원(약 5,000대 규모)한

다고 밝혔으며,

- 아울러,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도별 화물거점지역(터미널, 휴게소) 등에서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결과 최근 3년간(‘16~18) 야간 교통사고 11건에 1명꼴로 사망자 발생

- 또한, 졸음운전 예방의 일환으로 장착이 의무화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하여 영상설명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조기에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건설기계 관련 협회가 동참하여 대형 건설기계에 사각지대(NO_ZONE)를 설치하여 휴게소 이용자들과 운전자들에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 아울러, 화물·건설기계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오는 11월 30일 종료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행사개요

- (목적) 화물차·건설기계 과로·과속·과적운행 및 졸음운전 방지 등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추진
- (時/所) '19.11.6(수) 14:00~16:00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하행)
- (참석자)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건설산업과장,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전국화물연합회장(일반,용달,개별), 전국화물공제조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 직원 200여명
- (주요내용) 국장님 등 사고예방 메시지 발표, 첨단장치 부스운영 및 시연, 화물차 안전 반사띠 부착 시연행사(톤급·유형별 화물차)

□ 세부일정

시간계획	소요	내 용	비 고
14:00~14:20		- 물류정책관님 행사장 도착	
14:20~14:25	5'	- 교통사고예방 메시지 발표(5')	물류정책관(2'), 화물연합회장(1'), 공단(1') 대한건설기계안전원(1')
14:25~14:35	10'	- 첨단안전장치 부스관람(5')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물인식기반 첨단단속장비, 화물차 사각지대 경고장치 등 - 안전반사띠 관련 영상 시청(5')	야외 공간 캠페인 참여자 일반 시민
14:35~14:45	10'	- 화물차 안전반사띠 부착 시연행사 실시(10')	무대 주변 야외공간, 화물차 대기
14:45~16:00	75'	- 교통안전 캠페인	무대 주변 * 시설 이용객 대상

* 시간계획은 행사장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참고2

행사장 위치도



행사장 위치도

매송휴게소



매송휴게소 전경사진(경기도 화성시)

참고3

첨단장치 시연 부스운영

장 치 명	주요기능	사진
차로이탈 경고장치	<p>*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졸음 등) 차로 이탈시 경고</p> <pre> graph LR A[차선인식 정상주행] --> B[차선이탈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센서인식] B --> C[차선이탈 (일정 수준 이 상 차선 이탈)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C --> D[경고발생 경고음, 진동 등] </pre>	  
전방충돌 경고장치	<p>* 전방 차량(거리) 감지, 상대속도 고려 충돌(추돌) 위험시 경고</p> <pre> graph LR A[전방 차량 및 장애물 인식 정상주행] --> B[충돌감지 (일정 수준 이상)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B --> C[경고발생 경고음, 진동 등] </pre>	
사물인식 기반 첨단단속 장비	<p>*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기반 및 카메라 사물인식 기술 활용, 전방차량 속도 인식 및 위치, 시간 등 위반사항 발굴 및 영상 저장 장치</p> <pre> graph LR A[위반차량 인식(과속) 정상주행] --> B[영상저장 버튼 녹화시작] B --> C[위반영상 활용 계도·단속 과속자료 외 기타 교통법규 위반 행위 계도 영상자료 활용] </pre>	
NO-ZONE (사각지대)	<p>* 건설기계 덤프트럭 NO-ZONE(사각지대) 설치 체험</p>	

※ 가상운전체험(도로공사), 무상점검센터

9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 9월 대비 44% 감소

-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조업활동 축소가 주요 원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년 9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연이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7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13만 6천 톤)에 비해 44% 감소했다. 생산량 부진의 원인으로는 9월 발생한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이 꼽힌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2만 2천 톤, 고등어 8.2천 톤, 오징어 6.7천 톤, 전갱이 5.2천 톤, 갈치 4.1천 톤, 꽃게 4.1천 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전갱이(19% ↑), 꽃게(16% ↑) 등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살오징어, 삼치, 가자미류는 전년 수준, 고등어(71% ↓), 붉은대게(61% ↓), 참조기(54% ↓), 갈치(37% ↓), 멸치(29% ↓)는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전갱이는 제주 남부해역에 적정수온이 형성된 것과 함께 선망어업의 고등어 조업 부진에 따라 전갱이를 대상으로 한 어획노력량이 늘면서 전년보다 높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꽃게는 지난해 산란기(5~8월)에 적정한 산란환경 형성으로 유생밀도가

전년보다 86%나 증가함에 따라, 산란량 증가 및 높은 초기 생존율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등어는 주요 어업에서 기상악화(태풍 등)로 인해 조업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 어장인 제주도 주변해역~서해 중부해역에 걸쳐 형성된 저수온(1.0~2.0℃ ↓) 분포의 영향으로 어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붉은대게는 업종 간 조업경쟁에 따른 과도어획 및 불법어획(금지체장미만 또는 암컷)이 지속되어 자원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최근 활어상태의 붉은대게 유통이 늘면서 활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업시간 단축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갈치는 주 어장인 제주 서부해역 및 서해 남부해역에서의 저수온(1.0~2.0℃ ↓) 분포와 주요 먹이생물(멸치)의 분포밀도 감소에 따른 어군 분산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멸치는 기상악화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주 어장인 남해의 저수온(1.0~1.5℃ ↓) 분포 영향으로 어군이 외해로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19년 9월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전년(4,929억 원)보다 감소한 3,54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액은 전년보다 삼치(115억)가 16%, 청어(7억 3천)가 122% 증가했고, 꽃게(480억), 가자미류(63억)는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오징어(502억)는 15%, 멸치(443억) 25%, 갈치(255억) 49%, 참조기(159억) 60%, 고등어(122억) 59%, 전갱이(42억) 25% 전년보다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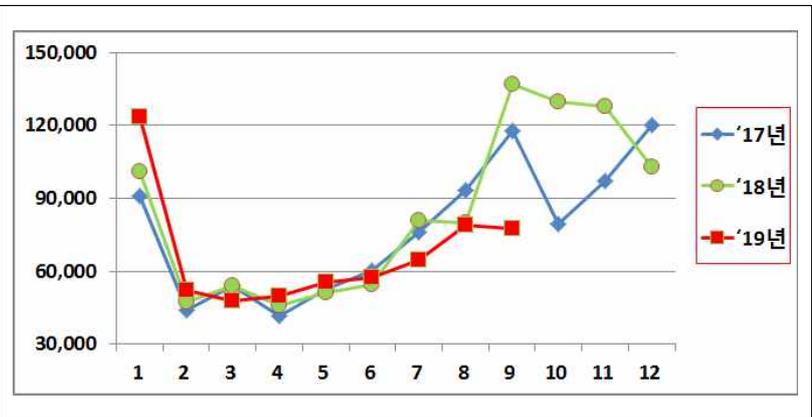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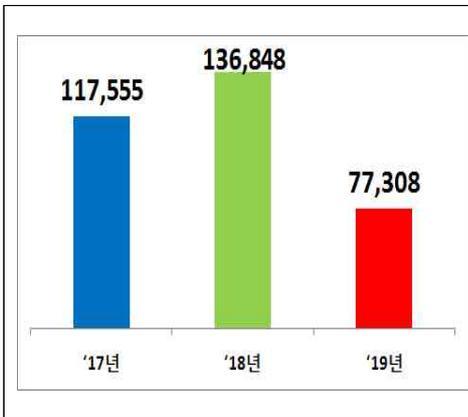
참고

월별 · 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 월별 생산동향

(단위 : 톤, %)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년	91,033	43,808	53,849	41,645	52,526	60,422	76,088	93,325	117,555	79,595	97,115	119,980
'18년(A)	101,177	47,559	54,259	46,066	51,342	54,383	80,778	79,730	136,848	129,769	127,914	102,680
'19년(B)	123,546	52,293	47,706	49,549	55,260	57,549	64,779	78,742	77,308			
대비(B/A)	22.1	10.0	-12.1	7.6	7.6	5.8	-19.8	-1.2	-43.5			



◀ 9월 당월 어획량(톤) ▶

◀ 월별 어획량(톤) ▶

□ 어종별 생산동향(9월)

(단위 : 톤)

구분	5년 평균 9월	2018년 9월	2019년 9월	전년대비 증감(%)	5년 평균 대비 증감(%)	2018년 총생산량
계	111,059	136,848	77,308	-43.5	-30.4	1,012,505
멸치	27,305	30,411	21,556	-29.1	-21.1	188,528
오징어	12,355	7,053	6,706	-4.9	-45.7	46,274
고등어	17,490	29,181	8,289	-71.6	-52.6	141,513
갈치	6,452	6,644	4,189	-36.9	-35.1	49,450
참조기	4,759	4,758	2,193	-53.9	-53.9	23,274
붉은대게	2,735	1,164	450	-61.3	-83.5	20,344
삼치	4,416	3,937	3,796	-3.6	-14.1	32,089
청어	745	467	732	56.9	-1.7	24,035
꽃게	4,447	3,547	4,137	16.6	-7.0	11,770
가자미류	1,028	899	932	3.6	-9.3	15,301
전갱이	2,833	4,382	5,232	19.4	84.7	27,019
기타	26,532	44,404	19,094	-57.0	-28.0	432,908